

‘살리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 개신총회 닷 올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초대 총회장 박 용 목사·순직교회)’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종암로 종암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개신총회는 여성목사 제도를 인정하고 제비뽑기를 통한 총회장 선출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교역자에 대한 연금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총회장 박용(순직교회·사진), 부총회장 박찬권(하나교회), 총무 조영식(반석교회), 사무국장 최승범(새안암교회)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박용 총회장은 “개신총회 정신에 부합한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토록 해 개혁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작지만 실속 있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예장개신총회 창립... 18개 노회 참여

예장개혁 역사적 정통성 계승, 총회장에 박용 목사, “5000여 개교회 결집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이하 예장개신)가 지난 1월 12일 종암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예장개혁 경기1노회는 구 다락방전도총회 세력과 단절을 위해 총회를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11년 예장개혁총회가 구 다락방 전도총회를 영입한 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소멸돼가는

것에 문제를 느낀 경기1노회는 구 다락방전도총회 측과 완전결별하고 탈퇴 후 예장 개혁 총회의 역사적 정통성 유지와 회복을 위해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총회를 창립했다.

예장개신총회 창립위원회(위원장 김순모 목사)는 인사말에서 “5,000여 개교회와 개혁인들이 하나되는 총회를 이루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8개 노회 목사 회원만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규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장개신총회는 목회정년을 폐지하되 총회공직(임원, 상비부장, 특별위원장)은 정년제(만 70세) 실시, 제비뽑기 방식의 임원선거, 총회회원 자격은 임직 3년 이상 목사와 장로, 목사회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자에게 총회가 준 목 목 자격을 부여하고 노회에서 인허, 개신대학원대학교

교 후원주임실시(년 1회)와 노회, 교회 정액 후원 등의 법과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창립감사예배에서 김순모 목사(예장개신창립준비위원장)는 ‘새 일을 행하리라’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경기1노회장으로 개혁총회를 탈퇴하고 개신총회창립위원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분리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기존 형태의 총회 창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되는 교단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 총회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분열의 역사에 대해 소개한 김 목사는 “분열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

휼하게 여기셔서 개신총회로 모이게 하셨다 지난날 허물을 말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일들은 내 책임으로 여기며 새롭게 출발해 아픔과 분열없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회무처리에서 총회장 박용 목사(서울 순직교회),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서울 하나교회) 진영수 장로(서울 종암중앙교회 시무장로), 서기 하금식 목사(전주 예전교회), 부서기 김순모 목사(동서울교회), 회록서기 백영강 목사(대전 덕암교회), 부회록서기 나건용 목사(서울 희망교회), 회계 김영수 장로(종암중앙교회) 등이 임원으로 선임됐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총 회 장
박 용 목사
(순직 교회)



목사부총회장
박찬권 목사
(하나교회)



장로부총회장
진영수 장로
(종암중앙교회)



서 기
하금식 목사
(예전교회)



부 서 기
김순모 목사
(동서울교회)



회록서기
백영강 목사
(덕암교회)



부회록서기
나건용 목사
(희망 교회)



회 계
김영수 장로
(종암중앙교회)



부 회 계
조계연 장로
(새안암교회)



총 무
조영식 목사
(반석교회)



사무국장
최승범 목사
(새안암교회)

사설

새롭게 시작하는 개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改新總會)가 창립되었다. 1885년 언더우드선교사에 의해 이 땅에 개신교가 첫발을 내디딘 이래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로 100회 창회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모든 예장총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자 동일한 회기를 사용하고 있다.

교단의 부흥이 있었지만 개신대학원대학교가 그 중심에서 밀려날 때는 교단의 쇠퇴가 이어졌다. 이제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동문들을 모으는 새로운 총회로 거듭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신학, 하나의 총회, 하나의 교회로 모으는 새로운 결집이 요구된다.

1979년 9월 20일 대구 동부교회당에서 소집된 제 64회 총회가 주류측에 의해 총대들의 입장이 통제되고, 비주류측 총대들이 총회 장소에 입장하지 못하자 은일교회당에서 회집하여 회장에 김일남 목사, 부회장에 백동성 목사등을 선임하고 정회하였다가, 동년 11월 6일 서울 청암교회당에서 속회하여 회부처리를 하므로 역사적인 합동보수 총회가 출범하였다.

1979년 9월 20일 대구 동부교회당에서 소집된 제 64회 총회가 주류측에 의해 총대들의 입장이 통제되고, 비주류측 총대들이 총회 장소에 입장하지 못하자 은일교회당에서 회집하여 회장에 김일남 목사, 부회장에 백동성 목사등을 선임하고 정회하였다가, 동년 11월 6일 서울 청암교회당에서 속회하여 회부처리를 하므로 역사적인 합동보수 총회가 출범하였다.

합동보수총회로 시작된 총회는 1981년 정규오 목사 측(조경대)은 교세의 약화를 회복하고자 중립 노선에 있던 합동신학교 측의 개혁교단(박운선, 노진현)과 합동을 결의한 결과로 교단 명칭을 "개혁교단"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1979년에 합동보수총회로 출범한 정규오 목사(조경대) 측의 교단은 1985년부터 개혁교단으로 호칭되었고, 1986년 개혁총회를 종암중앙교회에서 개최하게 된다. 1987년에는 신학교의 명칭도 개혁신학연구원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2003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개혁교단 총회 지명 신학교인 개혁신학연구원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개혁교단은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의 교단으로 발전하였다.

개혁교단이 설립된지 올해로 30년이 된다. 그러나 개혁교단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혁인들은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제 개신총회는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하며 한자리로 다시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개신총회의 사명은 바로 흠뻑 젖어있는 개혁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적인 총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개혁인들이 보는 눈은 꼭지 않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불신의 벽을 허물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개혁교단은 1998년 9개 교단 합동의 큰 물줄기를 이루었지만 곧 나누어졌고 2005년에는 광주측(정규오목사) 개혁교단이 합동에 흡수됨으로써 개혁교단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평강제일교회 박운식 목사 이단 해제, 2011년 다락방 류광수목사 영입으로 개혁교단은 산산히 흩어지게 되었다. 개혁교단은 류광수목사의 영입후 한국 교회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었고 그 결말 또한 파국적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결국 개신총회의 창립으로 개혁교단의 구 전도총회의 영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개혁교단에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중심이 될 때는

함께 발전해 가야 한다.

앞으로 개신총회의 일꾼은 누구나 개신대학원대학교 출신들이 감당해야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발전해야 총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총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우리를 낳은 어머니이다.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우리 신학이 형성되었고 목회를 배웠다.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무궁하 발전하도록 열심히 돕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개신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총회,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적극 돕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총회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개신총회는 새로운 빛을 올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개신총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선하고 새롭게는 평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개신총회는 새로운 빛을 올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개신총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선하고 새롭게는 평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총/회/장/취/임/사

작지만 큰 총회, 약하지만 강한 총회, 희미하지만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총회



총회장 박용목사 (순천향교회)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를 창립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어두운 과거를 거울 삼아 이제 작지만 새로운 역사 창조에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혀가 다시는 지지 않고 네 다리가 다시는 기울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네 빛이 되시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사 60: 20)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지혜요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총회로부터 총회장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부여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총회를 세우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개신총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총회 창립 준비 위원회와 함께 수립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첫째는 살리는 신학, 살리는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교훈입니다. 한국에서 살린다는 말처럼 절실한 말이 없습니다. 살린다는 말은 그 대상이 연약하기에 상대 적으로 홀로 서기에 부족함을 보완 해주고 보충해 주기 위해 헌신함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교회인의 약한 사람들 총회 안의 약한 교회들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적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총회의 신학은 살리는 신학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신학이 개신대학원 대학교와 개신교단의 신학적 이념입니다.

이 살리는 신학을 바탕으로 살리는 총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서 성장하고, 부흥하듯이 우리 총회는 항상 살아 숨을 쉬고 움직이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총회를 세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롭게 깨끗한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총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고 투명한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한 두 사람의 소영웅주의적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총회원들이 함께 총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총회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해하고 화합하는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죽이려하면 사울을 그들의 성경 선생으로 맞았습니다. 대화해와 화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결국 세계선교의 발전소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요 17: 22)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고귀한 뜻을 받들어 과거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되는 총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넷째는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이들을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40년 동안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훈련이 없는 백성은 결국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성도들이 이를 세력에게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자기기만과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해묵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적 비전과 철학을 갖게 해야 합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목사후보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계속교육 기회를 넓혀 연구하는 목회자, 공부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민족복음화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힘쓰는 총회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단, 그리고 세계선교에 주력하는 교단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0: 22은 "가장 작은 자가 친족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리 개신총회는 작지만 큰 총회, 약하지만 강한 총회, 희미하지만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총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뜻을 같이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과 힘을 합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시작을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작을 격려해 주시고 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이 시대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립/축/사

불과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같은 총회되길



조성현 총장 (개신대학원대학교)

우리 교단은 그 동안 영육의 역사를 반복하였습니다. 1979년 신학의 보수를 주장하며 합동측과 연합을 이루었고, 1985년 개혁측과 연합을 이루었고, 1998년 9개교단이 합하여 '개혁'이라는 교단의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타 교단과 합동도 하였으나 갈라서기를 반복하면서 개혁인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희미한 불씨가 되었고, 불씨마저도 흩어져 존재감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불씨에 소망이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불씨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불씨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고, 참된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불씨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꺼져가는 불씨를 내버려 두면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씨를 모아 답을 단단한 화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불과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신교단이 바로 이런 화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씨를 화로에 모아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을 만들고, 환한 빛을 내는 불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식어져 가고 사람이 메말라 동토(凍土) 같은 세상을 녹일 예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감각합니다. 길을 밝혀 죄악의 길이 무엇이며,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신교단이 바로 이런 불과 빛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개신교단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사랑하는 개신 총회의 교회들에게



사무엘 래머슨 박사 (미국 낙스신학교 총장)

이번에 새롭게 개신총회를 결성하는데 관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친구인 박용 목사님과 개신대학원대학교가 그 댓가를 감수하고 진리를 위해 서기로 결심한 것은 저에게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 총장님, 그리고 이사장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새 개신총회를 이끌어갈 인물로 박용 목사님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섬기는데에 한결같았고, 신실하였습니다. 박용 목사님을 포함한 개신총회 여러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연대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을 기꺼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학교에, 그리고 새 개신총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하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Dear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joy that I congratulate everyone who i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the new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fact that my dear friend, Pastor Yong Park and RTS have determined to stand for the truth despite the cost does not surprise me at all. All of the members of the faculty, the president, and Pastor Cho are men of integrity who care deeply about truth and the word of God.

I cannot think of a better person to lead this new denomination in its love for the truth than Pastor Park. He has been through both adversity and blessing in his service of the Lord and has been faithful through it all. It is my great pleasure to stand with him and you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May God bless you all greatly and may you trust in the Lord of all glory to supply all of your needs.

Please know that I am happy to help out in any way that I can and that I will be praying for God's richest blessings upon you, the school, and the new denomination. I leave you with this word from God:

"Some boa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will remember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Psalm 20:7

In the name of the Lamb of God who is also the Lion of Judah,

Samuel Lamerson

Samuel Lamerson, Ph.D.
President, Knox Seminary
FL, Lauderdale, FL-USA

5554 North Federal Highway | Fort Lauderdale, FL 33308 | www.KnoxSeminary.edu | (954) 771-0376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유다의 사자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되신 분의 이름으로...

개신신문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장 : 박용 발행인 : 조성환 편집국장 : 고태성 인쇄인 : 이정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04호 / 대표전화 : 02)3674-7008 팩 스 : 02)3674-7010

대한예수교회 순직한 교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담임목사 박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오며
저희 담임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선출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로 정성근, 최영식의 성도일동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 캐리터 199 3층 / T. 02-571-0304

■ 지면으로 보는 개신총회 설교문

새 일을 행하리라(이사야 43:18~21)



설교 김순모 목사 (창립준비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한국 개신교 사상 가장 위대한 일로, 개신교 역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일이 성취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개신총회창립에 이르기까지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개신총회 창립준비위원으로서 창립총회에 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창립하는 개신교단은 분리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러한 기존 형태의 창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립되는 교단이며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강대케되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총회는 순수한 복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순교의 각오로 일관된 심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군병들을 양성하는 백년대계의 총회를 설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총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2년 9월에 제1회 총회로 조직되어 1949년 신사참배로인해 고신파가 분열해 나갔고 1952년에는 자유주의 신학논쟁을 기점으로 갈라졌고 1959년에는 WCC의 에큐메니컬 가입 논쟁으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대구부부교회당에서 모인 제64회 총회에서 신앙과 신학이 같으면서도 교관싸움으로 총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위 비주류 보수측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교관문제로 사분오열되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분열의 아픔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 개신총회로 모이도록 하셨으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의 허물을 말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전하기 전에 그 동안의 모든 일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새로운 개신총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한국교회와 역사에 새로운 시작이며 가장 기쁜시간 중에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가드 사람 오벵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방랑한 자가 열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이같은 심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말씀대로 오늘 개신총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구출된 일에 대해 말하고 장차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에게는 지난 날보다 더 놀라운 일이 전개되리라 다가는 복음 시대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존영하시나 또한 오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항상 새롭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나 교회 가운데서 계속 새 일을 하고 계신다.

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벨론으로 붙잡혀 간 포로들에게 “무슨 희망과 무슨 비전”이 있었습니까?! 오직 절망과 낙망과 환란 뿐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2011년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현실에서 절대 희망을 포기 하지 않으면 살아남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소망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를 붙잡으면 삶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개신총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총회기적 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새 일을 이루시길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간의 어떤 총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새 일을 이루시길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결에 잠겨서 배를 띄우고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밀시에 앞뒤로 밀지 못하고 소말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개신총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새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시며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일 옛적일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백성에게 출애굽이란 그들이 지난 신앙의 근거요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신비한 능력 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 사건을 잊으라는 말씀은 곧 그에 비견되는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겠다는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위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총회의 기적을 통해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 “새 일”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옛날 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 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총회도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신총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혀 열려서 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1979년 합동 교단과의 분열 이후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새롭게 기지를 불었지만 교관주의의 타격을 외면해도 교관주의는 여전히 있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요, 권형과 독선과 위선과 양고한 고집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사상 분열은 있었지만 진정한 합동은 없었습니다.

1960년 합동측과 고신측이 합동했으나 2년이 못가서 다시 분열했고, 1981년 비주류 4개교단이 합동했으나 몇 달이 못가 분열했고, 1998년 9개교단 합동총회를 했지만 핵분열했으며 그 이후에도 3개교단이 합동했으나 분열되었고, 2011년도총회영일과 박문시목사 영일문제로 또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감싸고 이제 새롭게 개신총회로 모였 습니다.

우리 개신총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총회가 되기 위해 첫째, 정통개혁주의와 정통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전통적 신앙과 신학은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보수신학입니다. 보수라는 명칭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립하여 정통신학을 고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오늘의 교회가 속화타락하고 인본주의로 부패 했으니 이같은 오늘의 교회를 개혁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개혁신앙과 신학인 칼빈주의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보수신앙과 신학도 진력하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총회는 살리는신학, 살아있는목회의 개혁의 이름으로 하여 참신한 개혁주의 보수 신앙을 견지하는 진취적인 개신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관주의를 배격하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 몇 사람이 잡고 흐든는 교관주의체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전의 개혁교단은 계속해서 분열을 하여, 마치 ‘세포분열을 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개혁’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은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개혁교단이라고 어디 개혁이나 누구쪽이나 무슨 동아 학교가 아니다? 고 묻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때 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분열의 증상은 ‘교관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신총회는 절대로 교관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격하는 총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단이 세워지면 후진양성을 위해 신학교도 있어야 하고 목회자의 영성과 지식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간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 교단의 현재와 미래상은 그 교단 신학교의 질 수준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행히도 우리교단은 문교부로부터 인가 받는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군소교단은 무인개신학교로 무분별한 신학교육과 무질서한 목회자 양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상처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부터 수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물론 각 노회와 총회신하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후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개신총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개신총회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총회가 되기 위해서 정통개혁주의와 정통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총회 교관주의를 배격하는 총회,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개신총회를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온갖 아픔과 역경을 딛고 출발하게 된 개신총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비추는 등불이 되고 한국교회교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등에 아귀 느티나무 그늘처럼 한국교회와 각 교단과 언론과 상호소통을 통해 공동관심을 함께 나누는 공감대가 되어야 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없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총회임원들이 수고하고 먼저헌신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원 소개



총회장 박찬권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Th/M 순직한 교회 담임목사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하나교회 담임목사



부총회장 김상수 장로 중앙중앙교회 시무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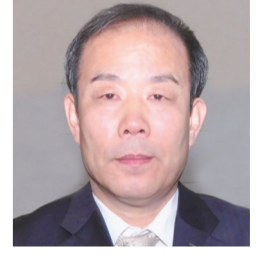
서기 하금식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전주 예전교회 담임목사



부서기 김순모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동서울 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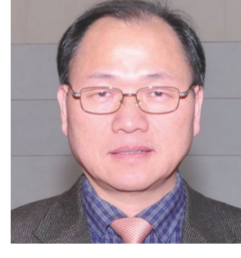
회록서기 백영강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실천신학 박사) 대전 덕암교회 담임목사



부회록서기 나건용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희망의 교회 담임목사



회계 김명수 장로 중앙중앙교회 시무장로



부회계 조계연 장로 개신대학원대학교 M/Div (목회학박사) 새안암교회 시무장로



총무 조영식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반석교회 담임목사



시무국장 최승범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Th/M (개혁신학연구원) 새안암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교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담임목사 박찬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오며 저희 담임목사님을 부총회장으로 선출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무장로 옥치원 외 성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101-82

개신총회에 바란다

신학적 정체성 분명한 총회,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 비전과 사명감이 있는 총회, 깨끗하고 투명한 총회 되길



손석태
철학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첫째, 나는 우리 개신총회가 신학적 정체성과 동일성이 확고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안의 가족들은 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를 공유하듯이 우리 총회의 총회원들은 다같이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라는 신학적 정신과 실천적 철학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표출되고, 동일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회원들은 철저하게 과거의 사고구조 및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려면 우리 머리 속의 "골"을 바꾸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인생철학을 확립해야 신자다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총회원들도 우리 머리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총회 시대를 생각하고, 그때의 총회를 답습하려고 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시고, 40년동안 광야를 이르고 다니시며 이들이 노예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민족이 되도록 가혹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이 없었더라면 400년 동안 그들의 뼈속에 베긴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노예로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 총회도 우리 총회 특색있는 프로그램 잘 만들어 총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멤버십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 굶어 모아 놓아보아 개신총회원으로서 DNA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총회는 결국 오랑지족이 되고 또 하나의 개혁총회 분파가 되고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총회가 되어야지 총회 이름만 바꾸고, 사무실만 옮긴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라는 말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다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신학교만 졸업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에 바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목회자의 할 일은 먼저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도 모였다하면 회의하고 회식하고, 체육대회하고, 목욕가거나 놀러가는 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 모임의 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노회원들이 결속되고 노회나 총회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역자 수양회도 노는 일이 대부분의 일정이고, 총회도 열렸다하면 싸우고 끝났다하면 갈라서서 새로운 총회를 만듭니다. 진지하게 앉아 신학 강의를 듣거나, 현안의 시대적 이슈를 놓고 신학 토론을 하거나 목회하는 데 지치고 어려움에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총회는 총회 기간에 회무는 가능한 한 마지막날 하루에 처리하고, 이틀이나 사흘은 외국의 우수한 총회처럼 성경 강해, 신학강의, 그리고 현안의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목회학적인 세미나 등을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한국 교회의 총회에 새바람을 불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비전과 사명감이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 400년 동안 살아남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들어가리라 믿는 비전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고,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속했던 총회는 비전도 비전이 없었습니다. 일반교회를 이루자는 표어는 내걸었지만 그 일반교회 이루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한국 기독교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한국 사회에서 세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빚더미에 앉았고 도산이 염려되는 교회가 셀 수 없을 정도이며, 교회내의 온갖 악습과 폐습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개신교 성도가 500만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성서공회와 성경공회, 찬송가공회와 찬송가 출판사, 한기총과 한교연 등등이 서로 맞고소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총회가 없습니다. 일부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미래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한국의 기독교는 침몰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개신교단이 창립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경신의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모범적인 총회, 교과서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난맥상을 치유하고 선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총회와 확실히 구별되는 총회, 한국의 총회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은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복음화와 복음의 세계화도 구호에만 그칠일이 아니고 작은 실천이 앞서는 교회, 총회장이 지적했듯이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외된자들에게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한국교회의 개혁과 경신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총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하는 숙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 위원장이나 총회장이 총회의 방향에 대하여 밝혔지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우리 총회에 바라는 모습이 있고, 그려보는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갓도록 총회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가 깨끗해야 합니다. 매년 5월 교역자 수양회가 되면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운동 여름내내 선거 물밑 음모로 총회 사무실이 북적거리고, 인근 식당이 선거 바람몰이배들로 성시를 이루다가, 선거만 끝나면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임원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하고, 꼭 임원을 하고 싶다면 총회나 신학교에 대한 사명감, 한국 교회나 해외 선교에 대한 소신다운 소신이나 비전이 있어야지 총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총회가 대의원을 개방하여 누구든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총회원들이 적임자를 직접 선거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비 뽑기를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비 뽑기가 깨끗한 선거를 보장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가려내서 뽑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차선책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 뽑기는 총회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식의 선거방법을 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금까지의 총회원들이 깨끗한 선거를 못했거나 할 수 없다는 전제의 산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제비 뽑기를 하지 않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는 새롭게 창립된 총회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기초공사를 잘하고 뼈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총회원이 이러한 새로운 총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기초 작업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총회가 신학적 정체성이 분명한 총회,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 비전과 사명감이 있는 총회,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총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총회장의 취임사와 같이 비록 작지만 큰 일하는 총회, 약하지만 강한 총회, 희미하지만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삼상 14:6)라는 말씀이 개신총회를 창립하는 모든 총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만 늘리려는 속된 총회를 꿈꾸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Quality 총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교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담임목사 하금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오며
저희 담임목사님을 서기로
선출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도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담임목사 김순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오며
저희 담임목사님을 부서기로
선출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도일동

서울 강동구 고덕로20 나길 38호

총회 헌법과 규칙의 주요내용



서문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수정 채용한 이래 수차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불안정한 점이 없지 않았다. 1959년 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 후에 자유주의 신학노선을 따르는 회원들이 이탈하여 1960년 2월에 통합총회가 구성되었고, 1960년 9월 제45회 총회가 승동교회에서 모여 10년 전에 신앙문제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던 고려측 총회와 합동하기로 가결하여 1960년 12월에 합동총회가 출범하면서 17인(고성도 김세영 김윤찬 노진현 명신홍 민상기 박병훈 박순혁 서완선 송상석 양성봉 윤봉기 이신식 전성도 정규오 한상동 황철도) 헌법개정위원을 선정하여 합동총회에 필요한 헌법 개정안을 입안하게 하였다.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선포 실시하였으며, 1979년 9월 제64회 총회가 총회신학교의 신학사상문제로 교권의 횡포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합동보수와 합동총회로 분리되었으며, 합동보수는 몇 년 동안 합동보수와 개혁총회로 양립하다가 1985년 개혁 총회의 명칭으로 합동하여,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위원회가 입안한 개정 초안을 1985년 9월 총회에서 통과하여 수의 절차를 거쳐 1986년 4월 7일 공포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같은 9개 교단이 합동하여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하여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통과하여 사용에 왔으나 변화하는 교회 환경과 역사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 2009년 9월 제94회 총회에서 개정위원을 선출하여 2년여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수정, 증보의 과정을 거쳤다.

개신총회를 창립하면서 이와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모범으로 하여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헌법을 제정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 기본 원리는 그대로 존중하고, 한국교회의 현 상황과 변화에 합당하도록 하여 새로운 총회를 지향하고 교회의 부흥과 총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전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를 준수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5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목회 정년을 폐지하되 총회공직(임원, 상비부장, 특별위원장)은 공직 정년제(만70세) 실시

가. 목회 정년제 폐지

헌법 제 4 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목사의 봉사하는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담임목사

- 1) 위임목사: 조직된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까지 시무한다.
- 2) 시무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담임한 지교회를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목회의 정년을 따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다. 담임목사의 경우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로 구분하였고 위임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까지 시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회하는 경우 충분히 건강한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없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시무목사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아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나이의 제한없이 담임한 교회를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했다.

나. 공직 정년제 실시

총회 규칙 제34조 총회공직(임원, 상비부장, 위원장)은 만70세로 한다.(단 당선직은 예외로 한다.)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무연한을 두지 않지만 총회 공직에 대해서는 시무연한을 분명히 함으로서 공직정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총회가 합리적이고 젊어지는 총회를 지향하고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총회의 일군으로 섬기게 함으로서 총회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임원이나 상비부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등에 대해서 만 70세 이상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 회원의 자격을 제한 한 것이 아니므로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며 총회 상비부에 부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총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총회의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70세 이상된 분들의 경륜과 자문의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 총회 임원이나 상비부장, 위원장등의 공직을 제한함으로써 교권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총회가 좌지 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여 누구나 승복하고 존중하는 생산적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임원선거방식은 제비뽑기로 한다.

지금까지 총회의 다툼과 분쟁 그리고 분열과 분리는 총회 임원선거의 후유증에 그 원인이 크다. 그리하여 총회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후보로 확정되면 더 이상 선거운동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선거 후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총회에 불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총회의 일군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비뽑기에 한계도 있지만 후보자 검증을 엄격하게 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총회 회원의 자격은 임직 3년 이상의 목사와 장로로 한다.

장로로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요, 대의정치이다. 각 지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노회에 회원을 파송하고 다시 노회가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여 교회정치를 하는 것이 그 근본원리이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당회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처리권을 가질 수 없고 총회의 총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장로교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교회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군소 장로교단의 경우 미조직교회(당회가 없는 교회)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각 노회에서 10교회당 1명의 목사를 파송한다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노회에서 소위 힘있는 목사 장로들만이 고정적으로 총회의 총대가 되는 현실에서 젊고 힘 없는 목사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고 총회에 충분한 건의와 발언과 의결의 권리도 없다.

사실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정치가 최고의 정치이다. 그러기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직 3년이상된 모든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은 총회의 회원이 되게 하고 총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회원으로서 발언하고 의결의 권리를 갖게 한다면 그만큼 총회 회원들의 총회 사랑도 깊어질 것이고 정체성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큰 장점이 있게 된다. 또한 총회원들의 민의가 왜곡됨 없이 충분히 반영됨으로서 총회가 모든 총회원들의 의사를 담은 합리적인 총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총회의 회원 구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확신한다.

목사회원의 계속 교육 실시

총회 규칙 제35조 목사인 경우 목사계속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목사는 계속 재교육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목사라면 누구나 배움에 목말라하고 공부하고 싶어한다. 그러기에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이 되는 총회, 개신대학원대학교가 함께하는 총회로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좋은 교수진으로 좋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렴한 교육료로 총회와 목사님들을 섬긴다면 총회의 목사회원들은 얼마든지 재교육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목사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총회의 일군이 되게 한다면 총회의 정체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자에게 총회가 준목 자격을 부여하고 노회에서 인허한다.

현재까지는 개신대학원대학교 3년과정을 졸업하더라도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또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신대학원대학교 3년의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목사후보생들은 목사가 될 자격을 충분히

히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다시 준목고시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준목고시가 목사후보생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목사후보생들을 길들이는 도구 사용되었던 점이 없지 않았으며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목사후보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목사 자격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주일 실시(년1회)와 교회와 노회가 후원

총회 규칙

제36조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제8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결의와 제88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결의에 의거 설립된 신학대학원대학교이다.

1. 제86회 총회(총회장 이봉기목사, 2001.9.18.) 결의 개혁신학연구원을 총회 인준신학교로 변경하는 건

개혁신학연구원 이사회 및 목포노회, 서울남노회, 서광주노회, 강릉노회의 현의는 중앙중앙교회(대표: 조경대목사)로 하여금 2003년 12월말까지 대학원대학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2. 제88회총회(총회장 박만휘목사, 2003.9.26.)결의사항 직영신학교 인수 강제 보고건

총회 직영신학교 인수, 인계 7인위원회가 개혁신학연구원을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인계, 인수하여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을 인계측과 인수측이 합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기로 가결한다.

인수 인계 7인위원회

정영민, 김규삼, 김복천, 류방식, 박만휘, 서경년, 홍보현(인계측)
조경대, 손석태, 진병대(인수측)

- ① 학적부, 도서, 비품, 기숙사 등 일체를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인계한다.
- ② 건물관리 등 현재의 모든 부채를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인수한다.
- ③ 총회에서는 후원이사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가 후원키로 한다.
- ④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경대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제37조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

총회는 36조에 의거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총회 직영신학교인 개혁신학연구원의 모든 학적등 모든 것을 승계한 학교로서 다음과 같이 후원한다.

1.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와 노회, 총회는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한다.
2. 교회는 년 1회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주일을 지킨다.

위의 규정에 의거 개신총회는 총회적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잘 되어야 총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회 회원들은 전교회적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총회 회원들은 모두 동문회식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암교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담임목사 백영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오며
저희 담임목사님을 회록서기로
선출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도일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64-22

대한예수교장로회 희망의 교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담임목사 나건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오며
저희 담임목사님을 부회록서기로
선출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도일동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61-25

개신총회 창립 선언문

존경하는 총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5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12년 창립 이래 역사적인 100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하여 새로운 인물들을 적극 등용하여 새롭고 깨끗한 총회를 하였습니다.

197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분열되고 난 후 개혁총회는 개혁신학을 파수하는 중심교단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총회는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 왔습니다. 1999년 개혁교단이 대통합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지만 곧 분열되었고 2005년에는 합동교단으로 개혁교단이 흡수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이단해제의 문제와 교권문제로 인하여 여러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뺨뺨이 흘리는 아픔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개혁인들의 자존감이 크게 상실되고 점차 개혁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상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개혁신학을 발전시키고자 개신대학원대학교(전신 개혁신학연구원)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뜻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켰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하는 총회를 표방합니다.

개혁총회와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관계를 규정할 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6회 총회(총회장 이봉기목사, 2001.9.18. 청주 은성교회) 결의사항

개혁신학연구원을 총회 인준신학교로 변경하는 건 개혁신학연구원 이사회 및 목포노회, 서울남노회, 서광주노회, 강릉노회의 현의는 중앙중앙교회(대표: 조경대목사)로 하여금 2003년 12월까지 대학원대학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락하다.

2. 제88회총회(총회장 박만휘목사, 2003.9.26. 중앙중앙교회)결의사항

직영신학교 인수 인계 보고
총회 직영신학교 인수, 인계 7인위원회가 개혁신학연구원을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인계 인수하여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을 인계측과 인수측이 합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인수 인계 7인위원
정영민, 김규석, 김복천, 류방식, 박만휘, 서경년, 홍보현(인계측)
조경대, 손석태, 진병도(인수측)

- ① 학적부, 도서, 비품, 기숙사 등 일체를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인계한다.
- ② 건물관리 등 현재의 모든 부채를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인수한다.
- ③ 총회에서는 후원이사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가 후원기로 한다.
- ④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경대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위 결의에 의거 개혁총회와 개신대학원대학교와의 관계는 개혁신학연구원의 모든 것을 승계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개혁교단의 모체(母體)이며 개신총회의 모체(母體)입니다. 그동안 총회에서는 후원이사회를 조직하여 전국교회가 후원기로 한다는 결의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이 곧 총회의 발전임을 인식하며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총회가 되고자 합니다. 규칙에 정하여 새롭게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주일을 총회적으로 각 지교회가 지키고 각 지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후원함으로써 책임있는 총회가 되도록 하고 적극 후원하는 총회가 되고자 합니다.

넷째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임원선거의 경우 제비뽑기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의 분쟁과 아픔을 배제하고 서로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되는 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는 것을 해소하여

또 다시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총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섯째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회자 계속교육을 강조하고 총회 또한 학습총회와 행정총회를 함께하는 총회를 이루어 목회자들의 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 풍토를 조성하여 개혁신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각 교회의 발전을 돕는 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섯째 목사임직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충분히 목회훈련을 마친 목회학석사과정을 졸업한 목사후보생들은 각 노회의 고시를 통하여 목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한국교회의 위기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장 부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총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에 충실하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혁인들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총회를 만들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흠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모두 모으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나누어져 있는 형제들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하여 하나되게 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모든 개혁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5,000여 개혁교회와 개혁인들이 하나되는 총회를 이루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연합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회 회원 여러분! 우리 개신 총회는 위와 같이 다섯가지의 주장과 일곱가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창립하고자 뜻을 모은 총회입니다. 이 총회가 부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복음사업에 큰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는 위대한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총회 산하 지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준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창립총회이모저모



지난 12일 중앙중앙교회에서 열린 개신총회 창립 예배에 참여한 총회원들



사회 조영식 목사 (창립준비위원장 서기) 설교 김순모 목사 (창립준비위원장) 대표기도 한영복 장로 (중경부총회장) 환영사 조성환 목사 (중앙중앙교회 담임)



축사 김병호 목사 (중경총회장) 축사 장효근 목사 (중경총회장) 헌금기도 진왕수 장로 (중경부총회장) 축도 김진일 목사 (중경노회장)



창립준비위원장이 신임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넘겨주고있다. 박 용 신임총회장이 회무처리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있다.



개신총회 창립 예배에서 총회원들과 취재중인 기자들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도착한 회화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중앙교회**
JONGAM JUNGANG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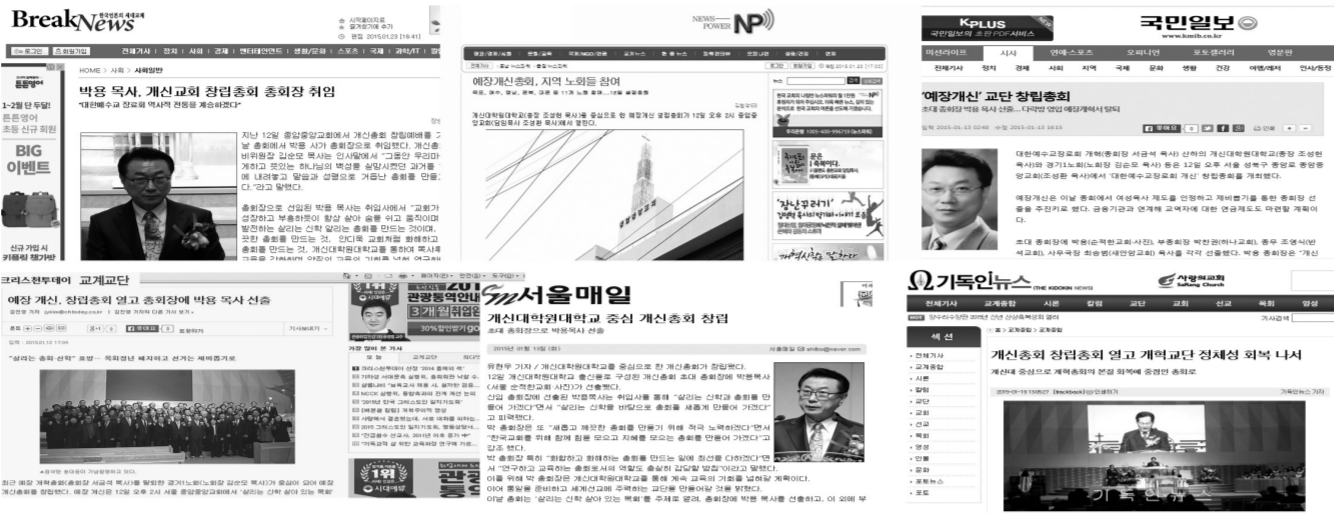
섬기시는분들

- 원로목사 조경대
- 담임목사 조성환
- 부 목사 안재인 고태성 나경훈
- 협동목사 조성현 조재천 노원석 김구원 배종열
- 교육목사 황금주
- 여전도사 김형자 안효숙
- 교육전도사 김아론 류태욱
- 원로장로 진병도 김정유 황호연
- 사무장로 진왕수 최삼봉 한광옥 조동일 김영수 하영선 김찬중 김동균 김형주 조은철
- 협동장로 김공대



개신총회 창립... 50개사 취재열기, 언론 반응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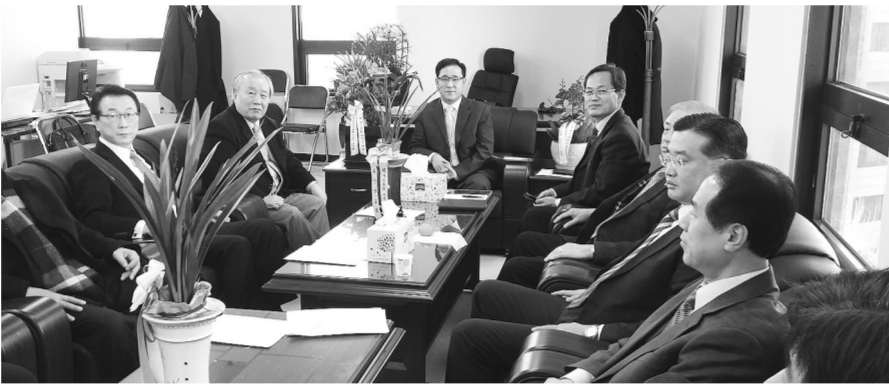
지난 1월 12일 개최되었던 개신총회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방송사로는 C.B.S 노컷뉴스, C.T.S, CGN TV, GOOD TV 등 모든 기독교 방송사들이 왔었고 신문사로는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크리스찬투데이, 기독교신문, 크리스찬신문, 뉴스파워, 기독교인뉴스, 기독교한국신문, 들소리신문 등 매거지 기독교신문사등 5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취재에 열을 올렸다.



인터넷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에 '개신총회'를 검색하면 교계 언론이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개신총회에 대한 향후 언론의 기대를 알 수 있다.

개신총회 사무실 개소 예배

2015년 1월 8일 개신총회 사무실에서 개소예배를 드렸다. 개신총회 사무실은 종로구 여전도회관 604호로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개신총회 설립준비위원회 서기 조영식목사의 사회로 설립준비위원장 김순모 목사의 설교와 김병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서기 조영식 목사는 광고를 통하여 사무실 준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다과는 전국여전도회(회장 김선미목사)가 준비했다.

△ 책상, 의자, 소파 - 순적교회(담임목사 박용 목사)
 △ 컴퓨터, 냉장고, 전화기, 기타물품 - 전국여전도회(회장 김선미 목사)
 △ 수납장 일체 - 하영선 장로(중앙침양교회)
 △ 허영선 장로(중앙침양교회)

개혁총회 전북동노회 교단 탈퇴하고 개신총회로 합류

전북동노회(노회장 하금식 목사)는 구 전도총회(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영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총회장 서금석 목사)를 탈퇴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동노회장 하금식 목사(예전교회, 사진)는 개혁총회 노회 탈퇴와 관련하여 "구 전도총회 지도부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계속교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계속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전혀 동참하는 분들이 없어 아쉬웠다"면서,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이렇게 결별을 선언한 것은 우리 전북동노회는 개혁총회(총회장 서금석 목사)에 있을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은 개혁신학의 산신인 개신대학원대학교에 함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금식 목사는 "개혁총회(총회장 서금석 목사)도 이제는 개혁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구 전도 총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혁교단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면서, "개혁총회의 구심점이며,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어온 개신대학원대학교가 구 전도총회를 영입한 개혁총회와 결별을 함에 따라서 전북동노회는 개혁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개신총회에 합류해 한국교회 내에서 올바른 개혁총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하 목사는 "과거 개혁교단의 형제들이 이제는 개신대를 중심으로 개혁총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을 말한다' 세미나 개최

개혁신학을 말한다

2015. 1/26(월) 10:00~12:20
중앙중앙교회



개혁신학과 성경신학
손석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예배 설교
김경채
개신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개혁신학과 조직신학
서관현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총신대학교 전 목장장

장소: 중앙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0-110)
 간담: 김성현 목사(중앙교회) 권종현 목사(오세암교회) 정영기 목사(영광교회)
 후원: 개신대학원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개혁신학연구원(서울), 개혁신학연구원(부산), 개혁신학연구원(대구), 개혁신학연구원(대전), 개혁신학연구원(광주), 개혁신학연구원(울산), 개혁신학연구원(경북), 개혁신학연구원(충북), 개혁신학연구원(충남), 개혁신학연구원(전북), 개혁신학연구원(전남), 개혁신학연구원(경남), 개혁신학연구원(제주)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오는 26(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중앙중앙교회에서 '개혁신학을 말한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김경채목사가 예배시 설교를 맡아 진행하고, 손석태목사가 '개혁신학'과 성경신학'을, 서관현목사가 '개혁신학'과 조직신학' 강의를 맡는다.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신학을 형성한 전설과 같은 교수진들로서 모든 개신동문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1노회 개혁총회 탈퇴 성명서

경기1노회는 1911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182회의 노회를 개최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중심노회로서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역사적 전통과 개혁신학의 보루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소속된 노회로서 총회 내에서도 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제회 총회는 당시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 정화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전도총회(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제회 노회는 총회의 영입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와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의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 결의를 존중하였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이 영입한 다락방 전도총회는 우리 교단의 노력과 한기총의 이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회 교단과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의를 대부분 한국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의 지도부들은 개혁교단의 신학이 정체성을 지키고 보수하려는 노력보다는 구 다락방 전도총회 측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모든 총회의 행사가 구 다락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강사들 또한 다락방 인물들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개혁교단의 정체성은 완전히 말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혁인들의 자존감을 크게 상실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교단의 자랑인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 전도총회를 영입할 당시에는 총회를 해체하면

서 개신대학원대학교 신학적 지도를 받았다고 한국 교회에 약속을 하였고,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총회의 외면 속에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수와 후원금은 급감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총회(개혁총회)가 된다면, 그러한 총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의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지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각 지교회는 이단문제 무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고 교인들 또한 떨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1노회는 구 다락방 전도총회측과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개혁총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구 다락방 전도총회측과 계속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1노회는 구 다락방 전도총회와 완전 결별하고 개혁총회가 개혁의 역사적 전통성을 유지하고 회복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이 되는 총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총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진다면 경기1노회는 언제든지 그러한 총회와 함께하고 싶고 자 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경기1노회 임원 및 중경노회장 및 회원 일동

개신대학원대학교 시무예배



학교의 모든 직원들과 교수님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교회처장인 배종열교수의 사회로 기도에는 김구원교수, 총장 조성현박사가 이사야 61:1-3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의 설교하고 신임이사장 조성현목사가 축사하고 손석태 명예 총장이 격려사를 조경태 명예 이사장이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쳤다. 총장 조성현 박사는 설교를 통해서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역사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다시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축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경기1노회

강중노회

경기남노회

경원노회

경중노회

경향노회

남서울노회

대전노회

목포노회

부산노회

서서울노회

서울남노회

수도노회

여수노회

영남노회

인천광역시노회

전북동노회

전서노회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개신총회와 함께 합니다!

중앙중앙교회 오시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길 18 (종암동 70-110)
 전철 : 6호선 고대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10분거리
 4호선 미아삼거리역 하차 고대방향으로 3정거장
 (중앙주민센터앞) 하차
 버스 : (간선) 100,110,130,141,144,148,163,410
 (지선) 1017,1111,1125,1213,7211 (좌석) 1001
 문의 : 개신대학원대학교 교학처 02-945-0910

개혁신학을 말한다

2015. 1/26(월) 10:00~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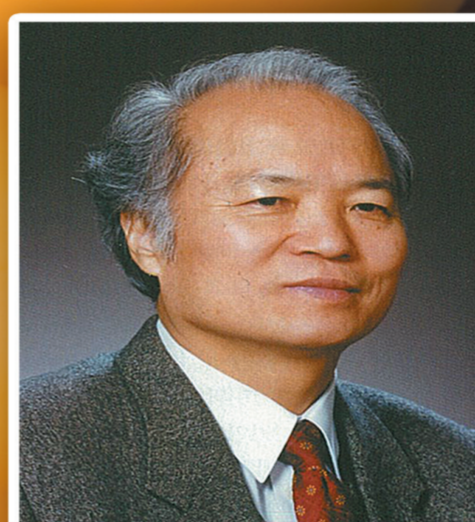
중앙중앙교회



개혁신학과 성경신학
손석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예배 설교
김광채
개신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개혁신학과 조직신학
서철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전 교수
충신대학교 전 부총장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살리는 신학 살아가는 목회”

목회학석사(M.Div.) 3년 전액 장학생 모집

- **지원 자격**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모집 인원** 5명
- **시험 과목** 성경, 영어, 면접
- **원서 접수** 2015.1.20(화)까지
- **시험 및 면접** 2015.1.21(수)

2015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과정

- **과정** **박사과정:** 철학박사(Ph.D.), 목회학박사(D.Min.), 성경신학박사(Th.D.in B.S.)
석사과정: 신학석사, 성경신학석사, 목회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석사, 코칭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기독교학석사, 성경연구학석사
- **지원 자격**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시험 과목** 전공, 면접
- **원서 접수** 2015.1.20(화)까지
- **시험 및 면접** 2015.1.21(수)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총장 | 조성현교수
(실천신학-설교)



손석태교수
(구약신학)



김광채교수
(역사신학)



배종열교수
(신약신학)



노원석교수
(상담학)



김구원교수
(구약신학)



조재천교수
(신약신학)



김산덕교수
(역사신학)



서요환교수
(실천신학-선교)



김영우교수
(사회복지학)



유충열교수
(코칭학)



장보연교수
(상담학)



배창돈교수
(제자훈련)



구병욱교수
(전도학)



이정현교수
(기독교교육학)



박경민교수
(교회음악)



안도희교수
(상담학)